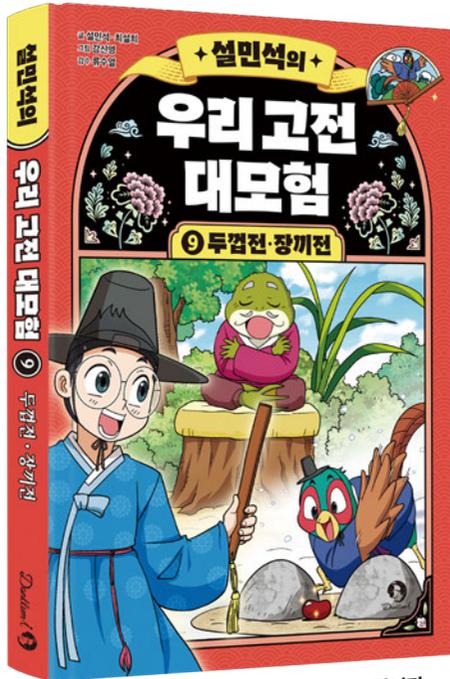


단꿈아이 독후활동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 ⑨ 두껍전·장끼전
글 설민석·최선희 | 그림 강신영 | 감수 류수열



- 이 책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9권을 활용하여 제작한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주)단꿈아이에 있습니다.

©Dankumi Corp.



<두꺼비전>을 정리해 보요!

1

노루 선생 환갑잔치

오룡산에 사는
노루 선생이
환갑잔치를 열고
동물들을
초대해요.



2

누구 나이가 많나

비어 있는
윗자리에 나이가
가장 많은 동물이
앉기로 해요.



4

망신당한 여우

약 오른 여우가
하늘 세상까지
가 보았다고
허풍을 치다
망신당해요.



여우

어휴, 망신!

3

두꺼비의 말솜씨

동물들이 서로 자기
나이가 많다고 하지
만, 모두 두꺼비의
말솜씨에
지고 말아요.



두꺼비

에헴, 내가 나이가
가장 많구먼.

5

호랑이가 나타났다!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호랑이가
나타나자, 두꺼비를 시작으로
동물들이 힘을 모아 물리쳐요.





<장끼전>을 정리해 봐요!

1 먹이 찾는 꿩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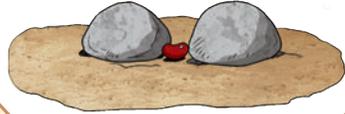
어느 추운 겨울날,
꿩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
들판으로
나와요.



장끼
부인, 나만
따라오시오~!

2 수상한 콩알 하나

장끼가 눈발 위에 놓인 콩알
하나를 발견하고 먹려고 해요.



4 장끼의 죽음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던 장끼가
덫에 걸려
죽게 돼요.



3 고집불통 장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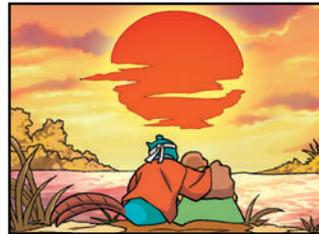
장끼는 콩을 먹겠다 고집
부리고, 까투리는
먹지
말라고
말려요.



까투리
여보, 그 콩 먹지 마요!

5 까투리의 새로운 사랑

장례식 이후 까투리는 여러 새의
구애를 물리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 준 장끼와 재혼해요.





교수님! <두껍전><장끼전>은 어떤 책이에요?

동물에 빗대어 인간 세상을 꼬집는 이야기,
<두껍전>과 <장끼전>

지은이 알려지지 않음

시대적 배경 조선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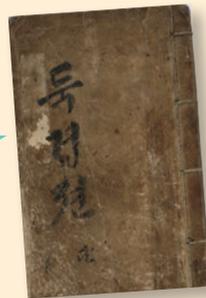
지은 시기 알려지지 않음

갈래 우화 소설

<두껍전>은 잘난 척하던 여우가 두꺼비의 말재주에 당하는 모습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허세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전 소설이에요.

<장끼전>은 여자 말을 무시하다 죽음에 이르는 장끼의 모습을 통해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불합리한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그려 내고 있어요.

우화 소설에서 동물들을 내세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비판을 돌려서 하기 위함이에요.



▲ 두껍전



▲ 장끼전

❁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 우화 소설

〈두껍전〉과 〈장끼전〉은 각각 두꺼비와 여우, 그리고 꿩이 주인공인 소설이에요. 이렇게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와 사람처럼 행동하는 소설을 ‘우화 소설’이라고 해요. ‘우화 소설’은 동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교훈 등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비판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현실의 탄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본능적이고 단순한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살이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 이 책을 함께 읽는 부모님·선생님께 ◆

〈두껍전〉은 여러 동물이 등장하여 나이 다툼을 하는 과정을 통해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편 〈장끼전〉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남편을 통해 남성 우위의 사회적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과부의 재혼이 금기시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장끼의 재혼을 통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소망을 보여 줍니다.

〈두껍전〉은 나이에 걸맞은 지혜의 가치를, 〈장끼전〉은 성별을 넘는 평등의 가치를 부각함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류수열 교수



설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 옛날에 환갑잔치는 어떤 의미였나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몹시 짧았어요.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았던 조선 시대 양반들의 평균 수명이 53세에서 59세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지요. 그런 면에서 만 60세 생일을 뜻하는 ‘환갑’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수했다는 의미였어요. 따라서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환갑은 경사 중의 경사였어요. 자손들이 이런 기쁜 날을 기념하는 환갑잔치를 열어 대대적으로 장수를 축하했지요.

❁ 태백산 신단수는 어떤 곳인가요?

신단수는 우리 민족의 기원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나무예요.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묘향산으로 추측) 정상 신단수 아래로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사람이 된 곰인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어요. 그리고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지요. 《삼국유사》에도 ‘사람이 된 웅녀가 신단수 아래서 아기를 가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 단군왕검

❁ 핥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나요?

조선 시대까지 꿩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재료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산과 들에 꿩이 많이 살고 있었고, 사냥도 비교적 쉬운 편이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였어요. 설날에 떡국 국물을 낼 때에 꿩고기를 자주 사용했으며, 만두나 회로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는 꿩보다 맛도 좋고 키우기도 쉬운 닭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꿩 요리는 향토 음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 옛날에도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었나요?

고려 시대까지는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교를 섬기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여자는 남편이 죽더라도 결코 재혼할 수 없었고 남은 평생을 혼자 살아야만 했어요. ‘과부 재가 금지법’이라고 하여 양반가 과부의 재혼을 막는 법까지 있을 정도였지요. 특히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관리로 뽑지 않는다는 법까지 생기면서 과부의 재혼을 막는 것이 굳게 지켜졌어요. 반면 남편이 죽은 후에 혼자 살거나 따라 죽는 경우, 나라에서 열녀문이나 열녀각 등을 내려 칭찬하기도 했지요.



▲ 열녀각인 군위 백죽각



설쌈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봐요!

Q <두껍전>에서 잔치의 윗자리를 두고 동물들이 겨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루의 환갑잔치에서 윗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의 위치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의미해요. 원래 호랑이의 자리였을 그 자리는 노루가 호랑이를 초대하지 않으면서 빈자리로 남아 누가 강한 동물인지 다툼을 불러일으켜요. 사람으로 빗댄다면 누가 권력을 쥘지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지요.



Q <장끼전>의 장끼는 왜 끝까지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장끼는 아내인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하다 죽어요. 당시 사회는 가장인 남편이 가족을 지배하는 가족 형태인 '가부장제'가 강력했어요.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남존여비' 사상이 일반적이었지요. 장끼는 가장이자 남성인 자기 생각과 의견만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 <두껍전>과 <장끼전>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미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 보세요.



<장끼전>을 읽고, 타고난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보다 잘났다는 ‘남존여비’ 사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중요하지, 가장의 의견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야.

<두껍전>의 동물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툰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권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 걸만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여우가 아니라, 두꺼비가 지혜와 재치로 그 자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자리에 걸맞은 인격과 지식을 갖추어야만 해.



.....

.....

.....

쏙쏙 들어오는 어휘력 노트

치가 떨리다 몹시 분하거나 지긋지긋하여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P.29

호패 조선 시대에 신분 증명을 위해 가지고 다녔던 작은 패를 말해요. P.34

속사포 탄알을 쉽게 장전하여 빨리 발사할 수 있는 포를 말해요. P.49

황소고집 몹시 센 고집. 또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P.83

구관이 명관이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많거나 익숙한 이가 더 잘하는 법임을 이르는 속담이에요. P.90

망망대해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P.104

상복 장례식 때 입는 옷을 말해요. P.115

침지 나이 많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P.119

과부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를 뜻해요. P.122

열녀문 조선 시대에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간 여인을 위해 세운 기념문이에요. P.130

청출어람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P.133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해력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읽고 푸는 문해력 퀴즈

- ①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에 ○해 보세요.

“아들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생각하면 치가
(갈린다 / 떨린다).”

- ②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보세요. ()

두꺼비: 세상 구경은 나도 많이 해 보았다만, 여우 네가 먼저 이야기해 보거라.

여우: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보지요! 먼저 중국으로 가 신선들이 산다는 열두 봉우리를 건너고, 채석강과 적벽강을 물길 따라 굽이굽이 구경한 뒤, 옛 장수들이 싸웠다는 들판을 지나, 복숭아꽃 활짝 핀 멋진 곳도 보았더랬지요.

두꺼비가 여우에게 먼저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여우가 처럼 말을 쏟아 냈습니다.

① 단세포

② 속사포

③ 박격포

3 <두껍전> 등장인물이 나이 자랑을 할 때, 각자 말한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 | | |
|----------|-----------------------------------|
| ① 여우 ● | ● ㉠ 내가 나무 세 그루를 심었는데, 이제 하나만 남았어. |
| ② 두꺼비 ● | ● ㉡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내가 밤낮으로 강을 봤지. |
| ③ 사향노루 ● | ● ㉢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별을 걸어 둔 것이 바로 나라네. |

4 <장끼전> 등장인물의 대화를 읽고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

- ① 까투리: 여보, 내가 꾸 꿈이 불길하니, 부디 저 콩 먹지 마오.
 ② 장끼: 껄껄, 당신 걱정도 팔자구려. 내 저 콩을 맛나게 먹겠소!
 ③ 탁첨지: 하필이면 맛있는 꿩이 걸리다니, 텃만 하나 버렸구나!

5 글을 읽고 뜻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뜻하는 말.

□ □ □ □

6 글을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

이야기판 사람들은 옆 마을 새로운 전기수가 동물 흉내를 굉장히 잘 낸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그러나 설쌤의 두꺼비 흉내를 보자, 역시 이야기책 낭독은 설쌤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① 불 보듯 뻔하다.
- ② 꼬리가 길면 밟힌다.
- ③ 구관이 명관이다.
- ④ 삼척동자도 다 안다.

7 <장끼전>을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맞혀 보세요. ()

- ㉠ 콩을 먹으려고 하는 장끼에게 까투리가 간밤에 꾸불길한 꿈 이야기를 했어요.
- ㉡ 까투리는 장끼의 장례식을 치른 뒤, 마음 맞는 홀아비 장끼를 만나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 ㉢ 어느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나선 장끼와 까투리 부부가 눈밭에서 콩알 하나를 발견했어요.
- ㉣ 장끼는 콩을 먹지 말라는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콩을 먹다 덮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 ① ㉠-㉣-㉡-㉢
- ② ㉢-㉠-㉣-㉡
- ③ ㉣-㉠-㉡-㉢
- ④ ㉣-㉡-㉢-㉠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독서 일기



미호의 독서 일기

1. <두꺼전>의 여우는 하는 짓마다 어찌면 그렇게 얄미운지, 여우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다.
2. 여우는 두꺼비의 재치와 입담에 밀리자, 두꺼비의 외모까지 비하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 누군가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설쌤의 독서 일기

1. <장끼전>의 결말은 조선 시대 백성들의 억눌린 현실 인식과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보여 준다.
2. 장끼는 추운 겨울 눈밭에서 발견한 콩을 뜻밖의 횡재라 기뻐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냥꾼이 놓은 덫으로 결국 장끼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의 행운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차분하게 그 상황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_____의 독서 일기



❁ 재미있었던 장면,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 인상 깊은 문장이나 대사,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정답 및 해설

1 **정답** 떨린다

해설 '치가 떨리다.'는 몹시 분하거나 지긋지긋하여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2 **정답** ②

해설 '속사포'는 '탄알을 쉽게 장전하여 빨리 발사할 수 있는 포'를 가리키는 단어로, 빨리 말하는 것을 속사포에 빗대어 '속사포처럼 말하다.'와 같이 쓰여요.

3 **정답** ① - ㉠, ② - ㉡, ③ - ㉢

4 **정답** ③

5 **정답** 망망대해

해설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뜻하는 말은 '망망대해'예요.

6 **정답** ③

7 **정답** ③

해설 어느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나선 장끼와 까투리 부부가 눈밭에서 콩알 하나를 발견했어요. ㉠ 콩을 먹으려고 하는 장끼에게 까투리가 간밤에 꾸넆던 꿈 이야기를 했어요. ㉡ 장끼는 콩을 먹지 말라는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콩을 먹다 밧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 까투리는 장끼의 장례식을 치른 뒤, 마음 맞는 훌라비 장끼를 만나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